

【특 집】

1937년 해인사대장경판의 印出佛事와 滿洲國 溥儀*

최영호**

차례

- I. 머리말
- II. 1937년 해인사대장경판 인출불사의 경위와 주체
- III. 1937년 인출본의 실체와 만주국 溥儀에게 봉정한 목적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1937년 수행된 해인사대장경판의 印出佛事に 대한 경위와 주체, 인출본의 실체와 만주국 황제에게의 봉정 목적을 새롭게 진단하였다. 이 인출불사는 사업 주체와 목적에서 일제강점기 이전과 비교하여 역사·문화적으로 독특한 성격을 가진다.

이 때 인출불사는 1935년 일본을 방문한 만주국 황제 푸이(溥儀)가 해인사대장경판 인출본을 열람하고 크게 관심을 보인 이후, 1936년 만주국 궁내부에서 조선총독에게 인출 의사를 전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조선총독부는 경성제국대학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교수를 실무 책임자로 의뢰하여 인출불사를 완료하고 만주국의 궁내부를 통해 푸이에게 봉정하였다. 이로써 인출불사의 주체는 최고식민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였으며, 목적도 외교적 필요성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당시 조성된 인출본의 두 질은 형태서지학적인 실체를 현재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면서 인출 종이의 종류와 함께 이 때 보충된 보각경판의 특징으로 당시 인출본의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인출종이는 만주국

* 이 글은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과 만주학회의 국제학술대회(동아시아 각국에서 바라본 만주·만주국 : 2018.11.30)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조교수.

소장본이 黃蘗色으로 물들인 황색 종이이며, 묘향산 보현사의 경우는 흰색 종이이다. 그리고 이 때 보각경판은 13세기 중엽 조성된 해당원판의 인출본과 비교하여 글자·광곽형태 및 각수·간행정보의 표기유무 등에서 일부의 차이를 보인다.

인출불사의 목적은 만주국 황제 푸이의 간절한 희망에 부응하여 수행되었다. 더구나 푸이에게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본을 봉정한 목적은 일본제국주의가 만주국과 정치·외교적인 공동목표를 강화시켜 대륙침략의 거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효과도 있었다.

주제어: 해인사대장경판, 1937년 인출불사, 조선총독부, 만주국, 푸이

I. 머리말

13세기 중엽 조성된 해인사대장경판에는 당대 고려 사람들이 염원·실천한 몽골침략의 격퇴라는 민족적 위기 등의 극복의지와 함께 동아시아사회에 전하던 佛敎敎學의 전통을 발전적으로 통합·계승한 보편적 가치도 담고 있다.¹⁾ 이러한 역사·문화적인 가치로 인해 2007년 6월에는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諸경판’이라는 명칭 가운데 포함되어 유네스코(UNESCO)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세계 인류의 보편적인 기록유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인사대장경판은 이미 중세사회 이래로 우리나라와 더불어 동아시아사회에서도 역사·문화적인 위상과 가치를 확보하고 있었다.

일본사회에서는 고려 창왕 즉위년(1388) 7월²⁾ 이래 조선 명종 11년(1556³⁾)까지 일본조정·막부 및 琉球國·對馬島 등에서 최소 107차례 정도나 해인사대장경판의 자체와 인출본 및 개별 경전을 요청하였으며, 조선왕실에서는 60차례 정도나 내려주었다.⁴⁾ 세종 5년(1423) 12월에는 일본 국왕이 세종에게

1) 최영호,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판각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3~4쪽.

2) 『高麗史』권50, 창왕 즉위년 7월 기묘.

3) 『明宗實錄』 권21, 명종 11년 11월 병진.

4) 韓文鍾, 2002, 『조선전기 일본의 大藏經求請과 한일간의 文化交流』, 『한일관계사연구』 17, 13

보낸 친서에서 해인사대장경판을 ‘法寶’로 표현하였다.⁵⁾ 이듬해 정월에는 조선조정으로 파견된 일본의 사신인 圭籌와 梵齡이 단식투쟁을 벌이면서 해인사대장경판의 일본조정으로의 양도를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며,⁶⁾ 일본조정에서는 조선조정에 해인사대장경판의 요청을 핵심 임무로 삼은 請經使도 파견하였다.⁷⁾ 특히 18세기 초기에는 동아시아사회에서 조성한 여러 한역대장경을 대조·교정하였던 일본의 學僧 忍澄(忍澄)도 해인사대장경판을 동아시아지역의 한역대장경 가운데 가장 우수한 기록유산으로 극찬하였다.⁸⁾

한편 고려 충렬왕 30년(1304) 국민의 대우를 받으며 고려사회로 왔던 원나라 臨濟宗의 고승 鐵山 紹瓊⁹⁾이 3년동안 머물다가 귀국할 때 江華島의 普門社에 봉안되어 있던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본 1질을 확보하여 중국 江西省 宜春縣 大仰山으로 옮기는¹⁰⁾ 등 중국에서도 14세기 초기부터 해인사대장경판을 중요 기록유산으로 여겼다.

이처럼 해인사대장경판은 중국 및 일본·琉球國·對馬島 등 동아시아사회에서 이미 14세기 이래부터 대표적인 불교기록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 틀은 20세기 전반기까지도 지속되었다. 일제강점기 초기 활동한 일본 식민주의 연구자가 기존의 연구성과를 정리하면서 해인사대장경판을 ‘世界の 至寶’로 표현하였으며,¹¹⁾ 조선총독부도 1933년 제정한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에 근거하여 1934년 5월 ‘海印寺大藏經板’의 명칭으로 典籍書跡文書 가운데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¹²⁾하는

~16쪽.

- 5) 『世宗實錄』 권22, 세종 5년 12월 임신.
- 6) 『世宗實錄』 권23, 세종 6년 정월 기묘.
- 7) 『世宗實錄』 권102, 세종 25년 10월 갑오.
- 8) 忍澄 상인은 “고려장(해인사대장경)은 모든 나라에서 비교할 대상이 없는 뛰어난 대장경이다.”고 하였다(忍澄上人曰, 高麗藏者, 萬國無雙善本 : 『高麗經本超出諸藏記』 : 오윤희, 2011, 『대장경, 천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 불광출판사, 114쪽).
- 9) 『高麗史』 권32, 충렬왕 30년 7월 기묘.
- 10) 吳龍燮, 2002, 『高麗國大藏移安記』에 대한 考察, 『書誌學研究』 24, 65~66쪽.
- 11) 池內宏, 1923, 『高麗朝の大藏經(上)』, 『東洋學報』 13 - 3; 1937, 『滿鮮史研究』 中世2, 487쪽.
- 12) 『通牒 : 國有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處分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官報』 1934.01.19.
『燦爛한半萬年の 文化를 자랑하는古蹟: 國寶二百五十二點 萬歲에保存을 決定/ 寶物二百十, 古

등 20세기 전반기까지 해인사대장경판은 동아시아사회에서 역사·문화적인 가치와 위상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 과정에서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라는 최고의 식민지통치기구가 주도하여 두 차례나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불사를 수행하였다. 두 차례의 인출불사는 일본 제국주의의 국가적·외교적 필요성에 부응하여 이루어졌다.

기존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불사를 진단한 내용이 제한되어 있다. 이 때 인출불사 과정에서 보각된 개별경판의 수량³⁾과 조성 현황·성격¹⁴⁾ 등을 검토한 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출불사의 역사·문화적인 실체를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1937년 인출불사도 해당 사업의 보고서¹⁵⁾와 목록집¹⁶⁾을 간행한 경우를 제외하면 독립적으로 분석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 글에서는 1937년 이루어진 해인사대장경판 인출불사의 경위와 주체, 인출본의 실체와 함께 滿洲國의 황제 푸이(溥儀)에게 인출본을 봉정한 목적 등을 진단할 예정이다. 이로써 1937년 인출불사의 역사·문화적인 성격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길 기대한다.

蹟卅一, [天然物]卅一點/ 朝鮮寶物古蹟保存會서, 『동아일보』 1934.05.03.

13) 기존 연구에서는 1937년 보각된 경판의 전체 수량을 총22판 24면으로 하였다가 17판으로 다시 조정하였으며, 장차 등의 오류와 함께 『대만야바라밀다경』 권21, 제13장(단면) 등의 경판도 누락되어 있다(徐首生 著, 南權熙 補·編, 2009, 『세계기록유산 해인사 팔만대장경과 사간판 연구』, 청주고인쇄박물관, 142·190~193·203쪽). 이러한 오류는 최근 글(최영호 외 3인, 2013, 『국보 제32호 海印寺大藏經板 중북판 조사용역사업 보고서』, 법보종찰해인사·합천군, 514~516쪽; 崔永好, 2014, 『해인사 소장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일제강점기 補刻板 조성현황과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40, 107~108쪽)에서 18판 31면으로 바로 잡았다.

14) 崔永好, 2014, 위의 논문.

15) 高橋亨, 1939, 『高麗大藏經印出顛末』(필사본 보고서).

高橋亨, 1951, 『高麗大藏經板印出顛末』, 『朝鮮學報』 2.

16) 崔凡述, 1970, 『海印寺刊鏤板目錄』, 『東方學志』 11.

II. 1937년 해인사대장경판 인출불사의 경위와 주체

해인사대장경판은 고종 23년(1236) 高麗國大藏都監과 高麗國分司大藏都監에서 조성사업을 시작한 이후, 같은 왕 38년 9월 일단락되었다.¹⁷⁾ 해인사대장경판은 조성 직후부터 인출불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인출불사의 사례는 충렬왕 30년 이전¹⁸⁾을 비롯하여 1960년대까지 최소 16차례 정도가 확인된다.¹⁹⁾ 고려 후기 충숙왕·공민왕·우왕 때, 조선 태조·정종·태종·세종·세조·연산군·고종(光武 연간 포함) 때, 일제강점기 및 1960년대까지 사례가 확인된다. 이들 인출불사 가운데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대개 국가·왕실이나 개인 및 사원 등이 주도하였으며, 국가와 왕실의 태평·번영, 국왕·왕족 및 개별 가문의 친족들에 대한 극락왕생 등 국가·사회적인 발원과 함께 특정의 해당 가문이나 개인의 지극한 기원의식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일제강점기인 1915년 및 1937년(정축년)의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인출불사는 사업의 주체와 목적에서 이전의 사례와 비교하여 독특한 성격을 보인다. 불사의 주체는 우리나라의 왕실·국가나 사원·개인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최고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였으며, 목적도 일본제국주의의 국가적·외교적인 필요성에 부응하였다. 더구나 1937년 불사의 목적도 1915년 경우와 달랐다. 1915년의 경우는 일본 황실의 위패가 있는 원찰(御寺)인 센뉴지(泉湧寺)에 안치할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본을 조성하는 목적²⁰⁾에서 이루어졌으나, 1937년의 경우는 滿洲國 황실의 요청에 부응하여 수행되었다.²¹⁾

1937년 인출불사의 수행 사실은 다양한 자료에서 확인된다.

17) 『高麗史』 권24, 고종 38년 9월 임오.

18) 吳龍燮, 2002, 앞의 논문, 83~84쪽.

19) 李橋, 『勝蓮寺記』, 『東文選』 권72, 記; 『牧隱藁』 牧隱文藁 권1, 記;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9, 전라도, 南原都護府, 佛宇, 勝蓮寺.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海外典籍文化財調査目録-日本 大谷大學 所藏 高麗大藏經』, 378쪽.

20) 小田幹治郎·寺内正毅, 1923, 『高麗板大藏經印刷顛末(1915)』, 東山 泉湧寺, 1~3·16쪽.

21) 高橋亨, 1951, 앞의 논문, 214·222~224쪽.

慶南 陝川 海印寺에서는 高橋博士의 지휘하에 오늘부터 50日 예정으로 八萬大藏經을 印刷하기 시작하다. 2帙을 인쇄하여 1帙을 滿洲國에 보낼 계획이다(『東亞日報』 1937년 09월 01일 : 국사편찬위원회, 『일제침략하 한국 36년사』 11권).

『동아일보』에서는 1937년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해인사대장경판(八萬大藏經) 인출불사의 책임자를 비롯하여 전체 일정과 인출본의 수량·양도주체 등을 간략하게 보도하였다. 京城帝國大學의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교수가 9월 1일부터 50일의 일정으로 해인사대장경판의 두 질을 인출하며, 그 가운데 한 질을 滿洲國으로 보낼 계획이라 하였다.

이제총독부주재로 고교박사(高橋博士)의 지휘(指揮)아래 九월一일부터 五十일간 예정으로 동대장경판(팔만대장경판)을 인쇄(印刷)키로 그 경비는 두 질(二帙) 二만四천원으로 그중 한질은만주국에 보내기로 되었다한다(『陝川海印寺에서 “八萬藏經”印刷 : 九月一日부터 五十日間』 『동아일보』 석간 1937년 09월 03일 2면).

9월 3일 발행된 같은 신문의 석간에서는 불사의 주체와 경비 등이 추가되어 있다. 주체는 일제강점기 식민지통치의 최고기구로 역할·기능한 조선총독부이며, 두 질의 경비가 24,000원이라 하였다.

이번 만주국황실(滿洲國皇室)로부터 이 팔만대장경의 인쇄를 총독부에 위탁해왔으므로학무국에서는 곳 이인쇄에 착수하기로 되었다……그리고 이번 만주국황실로부터는 전부二부를 인쇄해달라□의뢰를한것이며 一부인쇄비만 一만五천원을 요하는것이라 二부인쇄에만 三만원을요하게 되는것으로서(『海印寺의 八萬大藏經 滿洲國皇室에서 寫本二部를 御請求 : 二部印寫費三萬圓巨額』 『至重文獻의』 光榮』 『每日申報』 1937년 09월 17일(금요일) 03면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 자료).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한글 기관지로 발행되었던 『每日申報』에서는 1937년 9월 17일 『海印寺의 八萬大藏經 滿洲國皇室에서 寫本二部를 御請求

: 二部印寫費三萬圓巨額 『至重文獻의』 光榮』이라는 기사제목에서 인출불사의 경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도되었다.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불사는 만주국 황실의 의뢰로 조선총독부의 학무국에서 주도하였으며, 2부의 인출 경비도 9월 3일 발행의 『동아일보』 석간에서 예시된 24,000원보다 많은 30,000원의 거액이라 하였다.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로 발행된 『京城日報』의 1937년 9월 17일 『半島二千年の文化を秘むる 八萬大藏經 : 滿洲國皇帝の御懇望から 近く總督府で印刷』라는 기사제목과 내용에서도 불사의 주체를 조선총독부라 하였으며, 한 질의 인출경비가 15,000원 정도로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보도하였다. 더구나 기사 내용에서는 ‘南總督宛依頼があつたので南總督は直もこの印刷方を命じ目下準備を進めてゐるが’라 하여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가 인출불사에 직접 개입²²⁾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37년 10월 10일 발간된 『平壤毎日新聞』 기사에서도 조선총독부에서 전체 경비 30,000원으로 世界的 國寶인 해인사대장경판(海印寺의 八萬藏經)의 두 질을 인출하여 한 질을 滿洲國 皇帝에게 헌상하고, 다른 한 질을 조선총독부에 보존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때 수행된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불사를 조선총독부의 획기적인 대사업으로 표현하였다.²³⁾

조선총독부에서는 이대장경을 二부출판해야 한부는 만주국 황제폐(하滿洲國 皇帝陛下)께 헌상하고 나머지 一부를 조선총독부에 보존할 계획으로 금년 여름 성대교수고교문학박사(城大教授高橋文學博士)를 해인사에 파견시켜 一千五百十二종 으로된 六千七百九十권(八萬一千二百五十九枚)의 대장경정리와 그의 편집을 신행하여야오든바 수일전에 드디어 전□완료를 두게 되었음으로 위선 그일부분을 경성(京城)에 송부하고 제본(製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한다……동대장경의 금회출판은 조선총독부로서는 획기적 대사업으로 총경비 三

22) 『半島二千年の文化を秘むる 八萬大藏經』, 『京城日報』 1937.09.17(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연속간행물/한국근현대신문자료).

23) 『(千古神祕の扉開く)海印寺の八萬藏經 二部出版近く世へ! / 高橋博士が編纂整理 一部は滿洲國皇帝へ獻上』, 『平壤毎日新聞』 1937.10.10(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연속간행물/한국근현대신문자료).

萬원을 던진것이라는바……만주국황제폐하께헌상하게사지되라면 다시 一
년이더걸녀야할것이라고한다『滿洲國皇帝께 獻上할 千古秘藏의 大藏經 城
大教授高橋博士의 손으로 騰本整理全部完了』『每日申報』1937년 10월 12
일(화요일) 06면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 자료).

1937년 10월 12일 발행된 『每日申報』의 「滿洲國皇帝께 獻上할 千古秘藏
의 大藏經 城大教授高橋博士의 손으로 騰本整理全部完了」라는 기사에서도
인출불사와 관련된 사실을 보도하였다.

이상과 같은 기록에서 1937년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불사는 만주국 황제
푸이의 요청→ 조선총독부의 수용·주도→ 다카하시 도오루의 현장 책임
등과 같은 단계를 거치면서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인출
불사의 주체를 조선총독부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인출불사의 현장 책임을 맡은 다카하시 도오루가 인출불사의 완료
이후인 1939년 5월 필사본으로 작성·제출한 보고서 「高麗大藏經印出顛末」
과 함께 1951년 학술지에 게재한 「高麗大藏經板印出顛末」(『朝鮮學報』2, 天理
大學 朝鮮學會)에는 이 당시 인출불사의 경위와 주체 등이 보다 상세하게 기
록되어 있다.

滿洲國 황제가 일본을 방문한 1935년 4월 12일 일본의 宮內省 圖書寮 및
帝室 博物館에 소장된 옛 서적을 열람하면서 黃蘗板大藏經과 海印寺板大
藏經을 주목

만주국 황제가 귀국한 이후인 1936년 가을 만주국 宮內府의 林出賢次郎
行走를 통해 2종의 대장경판 인출을 희망하는 의사를 일본 宮內省과 조선
총독에게 전달

일본 궁내성은 즉시 일본 黃蘗寺와 교섭하여 황벽판대장경 인출불사의 계
약을 체결하였으며, 조선총독도 塩原 秘書官을 통해 京城帝國大學의 高橋亨
교수에게 예산·기획서의 작성·제출을 의뢰하였으며, 高橋亨교수가 1915년
의 인출불사 자료를 근거로 한 질 15,000원 소요의 인출불사 예산서를 제출

塩原 秘書官은 高橋亨교수가 제출한 예산·기획서를 만주국의 林出賢次郎 行走에게 발송

1937년 5월 林出賢次郎 行走가 塩原 秘書官에게 인출불사를 요청하였으며, 塩原 秘書官이 高橋亨교수에게 통지

1937년 5월 17일 高橋亨교수가 경성제국대학 朝鮮文學研究室의 조수 張之兌 및 學務局 宗教係의 囑託 洪錫謨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해인사 승려 20명과 1915년 인출불사의 인출본 목록을 대조하고 경판 81,258매를 5일 동안 2차레나 조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판을 새로 정돈·배치하고 미발견 경판 23매도 확인

1937년 6월 高橋亨교수가 新京(만주국의 수도로 지금의 吉林省 長春市)으로 가서 林出賢次郎 行走를 면담하고 만주국 황제의 성향 등을 점검한 이후, 인출불사를 사전 준비하면서 인출 종이·묵·전문인력·용품을 확보하는 동시에, 조선총독부 學務局의 협조로 보각경판을 補刻

1937년 9월 1일 高橋亨교수가 20명의 일행과 해인사에 도착하여 해인사 등의 협조로 인력을 충원하고 법회도 열었으며, 당일 저녁에는 인출불사의 개요·수행방법·분담내용 등도 설명

만주국 황제 요청 1부와 함께 京城佛敎專門學校 소장 1부 등 두 질을 인출하면서 경성불교전문학교 소장본을 1차로 白紙에 인출한 이후, 만주국 황제 요청의 인출본을 2차로 黃紙에 인출하였으며, 인출불사에서는 검열·검수·교정 등의 과정도 거쳐 오류를 최소화

1937년 10월 17일에는 9월 2일부터 시작된 인출불사가 45일 만에 완료(휴일 7일을 제외하면 38일동안 인출불사가 진행)

10월 20일에는 해인사의 대법전에서 경찬대법회를 개최

1937년 10월~1938년 정월에는 인출본을 경성으로 옮겨 제본하고 조선총독의 참관으로 검사 절차를 거침

1938년 정월 17일에는 해인사대장경판 인출본을 新京의 만주국 宮內府로 발송하였으며, 정월 19일 도착

1938년 정월 21일에는 高橋亨교수와 張之兌조수가 新京으로 도착하여 다음 날 만주국의 궁내부를 방문하고 도착한 인출본을 점검한 다음, 만주국 황제에게 봉정(인출불사의 종결)

한편 京城佛教專門學校로부터 의뢰받아 인출한 다른 한 질도 1938년 정월 제본한 이후 妙香山 普賢寺로 옮겨 소장

1937년(정축년)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불사는 1935년 4월 일본을 국민으로 방문한 만주국의 황제 푸이가 1669~1681년 일본의 黃蘗宗에서 조성한 黃蘗板大藏經과 함께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본에 주목하였다가 1936년 가을 만주국 宮內府에서 2종의 대장경판 인출을 희망하는 의사를 일본 宮內省과 조선총독에게 각각 전달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되었다. 이에 조선총독은 경성제국대학의 다카하시 도오루교수에게 해인사대장경판 인출불사의 현장책임을 의뢰하였으며, 다카하시 도오루는 1937년 5월 사전조사 작업을 거친 이후 9월부터 본격적인 인출불사를 진행하여 10월 현장 인출작업을 마무리하였다. 1937년 10월~1938년 정월에는 경성에서 제본(장정)작업을 하고 조선총독의 참관으로 검사 절차를 거친 다음, 1938년 정월 인출본을 新京(만주국의 수도로 지금의 吉林省 長春市)의 만주국 宮內府로 발송하였으며, 다카하시 도오루가 만주국의 궁내부에 도착하여 인출본을 점검하고 만주국 황제에게 봉정하면서 인출불사가 완전하게 종결되었다.

다카하시 도오루의 글에서도 1937년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불사는 만주국의 요청으로 조선총독부가 주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소개된 언론 보도자료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때문에 1937년 조선총독부에서 주도한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불사는 해인사대장경판이 조성된 13세기 중엽 이후 조선왕조까지 수행된 인출불사와 다른 성격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해인사대장경판을 조성·

보존하였던 우리민족의 의사나 결정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조선총독부의 정치·외교적 이해관계가 반영되었다는 사실이다.²⁴⁾

Ⅲ. 1937년 인출본의 실체와 만주국 溥儀에게 봉정한 목적

1937년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불사로 조성된 두 질의 인출본은 형태서지학적 실체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상태이다. 만주국 소장본의 경우는 행방이 명확하지 않으며, 묘향산 보현사의 소장본도 접근과 열람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해인사의 대장판전에 현존하는 당대 보충된 보각경판, 그리고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교수의 제출 보고서(『高麗大藏經印出顛末』) 및 논문(『高麗大藏經板印出顛末』) 등을 근거로 형태적인 특징을 진단할 수 있다.

우선, 인출 종이의 종류를 지표로 분석할 수 있다. 1937년 해인사대장경판 인출본의 종이 종류는 순수한 닥나무 껍질(純楮皮)로 만든 닥종이로, 이 가운데 만주국 소장본은 黃蘗色으로 물들인 黃紙이며, 묘향산 보현사의 경우는 白紙이다.

다음으로, 1937년 보각된 개별경판의 인출본 내에서의 포함여부도 핵심적인 분석지표로 삼을 수 있다. 1937년 인출불사 때 보각된 경판은 海印寺와 金剛山 正陽寺 및 조조지(增上寺) 등의 소장 인출본을 활용하여 콜로타이프(collotype) 방식으로 판하본을 제작한 다음 복각하였으며,²⁵⁾ 조선 고종 2년

24) 그러면서 이 때 인출불사의 수행에서는 우리나라 출신의 다양한 현장전문 인력들이 참여하면서 해당 업무를 분담하였다. 경성제국대학 朝鮮文學研究室의 주수 張之允, 조선총독부 學務局 宗教係의 囑託 洪錫謨, 해인사의 法務를 지낸 崔英煥, 해인사 및 해인사 부근의 승려·일반인 등이 해인사대장경판의 목록 대조와 전체 수량 등 사진 전수조사, 경판의 정돈·배열, 인출실무, 실무인력의 감독, 교정, 인출 시작·종결 법회 등을 분담하였다. 崔英煥은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였던 불교 지식인 曉堂 崔凡述로 1937년 인출불사 때 소위 해인사 소장 寺刊板도 인출·정리하였다(崔凡述, 1970, 앞의 논문, 369쪽). 그리고 종이·먹 등과 같은 인출재료도 우리나라 생산품을 사용하였으며, 보각경판의 원천자료도 일본 도쿄 조조지(增上寺)와 함께 海印寺 및 금강산 正陽寺에 소장된 인출본을 활용하였다.

25) 高橋亨, 1951, 앞의 논문, 217쪽.

(1865) 처음 판각된 소위 『보유목록』의 보각경판 1판 2면도 포함되어 있다. 이 때 보각된 경판은 현재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존되어 있으며, 전체 수량은 현재까지 『보유목록』 1판 2면을 합쳐 전체 18판 31면으로 확인된다.²⁶⁾

[1937년 인출불사 때 보각경판]

순서	경전 이름	卷次	張次	函次	1915년 보각여부	원판 현존여부	비고
1	大般若波羅蜜多經	21	13	玄	○	1237년	단면
2	"	31	26	黃	○	"	1판 양면
			27		○		
3	"	33	12	"	○	×	"
			13		○		
4	"	49	6	宇	×	1237년	"
		73	2	荒	○	"	
5	"	56	3	宙	○	"	"
			4		○		
6	"	56	15	"	○	"	"
			16		○		
7	"	67	9	洪	○	"	"
			10		○		
8	"	68	2	"	○	"	"
	集古今佛道論衡	丁(4)	44	星	○	1244년	
9	大般若波羅蜜多經	126	19	辰	○	1238년	"
			20		○		
10	"	141	6	列	○	"	단면
11	"	144	23	"	○	"	"
12	"	153	20	張	○	"	"
13	大乘廣百論釋論	4	15	是	○	1243년	1판 양면

26) 崔永好, 2014, 앞의 논문, 106~108쪽.

순서	경전 이름	卷次	張次	函次	1915년 보각여부	원판 현존여부	비고
	菩提心離相論	단권	6	起	○	1244년	
14	大莊嚴論經	2	19	事	×	1243년	"
			20		×		
15	阿毗達磨大毗婆沙論	88	5	節	○	×	"
			6		○		
16	阿毗達磨順正理論	7	17	志	○	×	"
			18		○		
17	出曜經	25	17	盤	○	1244년	단면
18	補遺目錄	단권	1		×	1865년	1판 양면
			2		×		

1937년 인출불사 때 사전 조사사업으로 보각된 개별경판의 종류는 『대반야바라밀다경』 권49의 제6장, 『대장엄론경』 권2의 제19·20장, 『보유목록』 단권의 1판 양면 등과 같이 새로 보각된 3판 5면을 제외하면, 1915년 이미 보각된 18판 26면과 중복되기도 한다. 중복 연유는 1915년 보각경판 18판 26면이 서체 등에서 13세기 중엽 조성된 해당 원판과 차이를 보이므로, 1937년 인출불사 때 새롭게 보각²⁷⁾하는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1937년 보각경판을 다시 만들 때에는 해인사·정양사 등에서 해당 개별원판의 인출원본을 확보하여 콜로타이프 방식으로 판하본을 제작하여 복사하면서 13세기 중엽 조성 원판의 서체와 판식 등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이에 1937년 보각경판은 1915년 보각경판에 비해 본문 서체나 권제·판제 형식에서 13세기 중엽 조성된 해당 원판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면서 1937년 보각경판으로 찍은 인출본은 13세기 중엽 조성된 해당 개별원판의 인출본과 서체·광곽형태 및 각수·간행정보의 표기유무 등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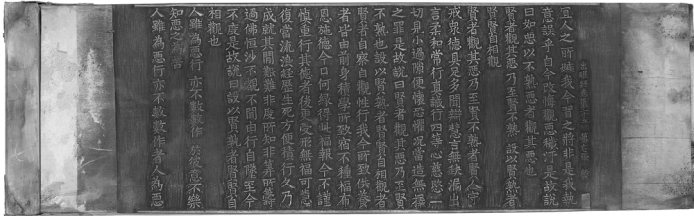
27) 高橋亨, 1951, 앞의 논문, 215~217쪽.

서 일부 경우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1244년
조성원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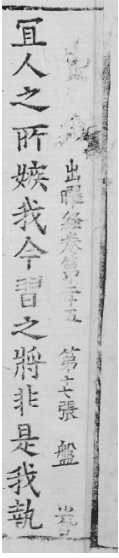



1937년
보각경판



『出曜經』 권25 제17장의 경판형태

해인사대장경판에 포함된 경판으로 고종 31년(1244) 高麗國大藏都監에서 조성된 『出曜經』(盤함) 권25의 제17장은 匡郭이 四周單邊인데 비해, 1937년 보충된 보각경판의 광곽은 上下單邊의 형식으로 차이를 보인다. 1937년 보각경판의 광곽은 전체가 상하단변과 함께 上下左單邊·上下右單邊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13세기 중엽 조성 원판과 다른 형식을 보이기도 한다.

		
<p>1244년 조성 원판</p>	<p>오오타니대학 소장 인출본</p>	<p>1937년 보각경판</p>
<p>『出曜經』 권25 제17장의 각수</p>		

『출요경』 권25 제17장의 경우는 각수의 유무에서 차이를 보인다. 고종 31년 조성된 해당 원판과 우왕 7년(1381) 인출된 일본 교토(京都) 오오타니(大谷)대학 소장의 해당 인출본에는 판수제의 아래 ‘光呂’라는 각수가 새겨져 있는데 비해, 1937년 보각경판의 경우에는 같은 위치에 각수를 새겼다가 제거한 흔적이 남아 있는 등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행자 위치	4행 6째	8행 9째	15행 13째	18행 11째	21행 11째
1244년 조성원판					
오오타니대학 소장 인출본					
1937년 보각경판					
『出曜經』 권25 제17장의 본문글자 형태					

그리고 『출요경』 권25, 제17장의 경우는 본문 글자의 마모 정도와 함께 형태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고종 31년 조성된 원판의 본문 서체는 오오타니 대학 소장본과 동일하면서 1937년 보각경판과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1237년 조성원판	오오타니대학 소장 인출본	조조지(增上寺)소장 인출본	1937년 보각경판
『大般若波羅蜜多經』 권31 제27장의 간행정보 형태			

『대반야바라밀다경』 권31 제27장의 경우는 마지막 장의 권미제 다음에 새겨진 간행정보의 유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종 24년(1237) 고려국대장도감에서 조성된해당 원판과 함께 오오타니대학 소장 해당 인출본에는 권미제 다음 행에 ‘정유년(고종 24 : 1237) 고려국대장도감에서 황제 고종의 명령을 받들어 이 경판을 새겨 만들었다(丁酉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라는 2

행의 간행정보가 표기되어 있다. 이들 간행정보는 13세기 중엽 해인사대장경판을 조성한 高麗國의 대외적 자주의식 등이 반영되어 있다.²⁸⁾ 그런데 1937년 보각된 해당 경판의 경우에는 간행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아울러 1937년의 보각경판에는 고종 24년 조성된 해당 원판과 오오타니대학 소장의 해당 인출본에 작은 글자로 표기된 ‘大般若卷第三十一 第二十七張 黃’이라는 판미제도 빠져있다.

판미제와 간행정보가 제외된 연유는 1937년 콜로타이프의 방식으로 제작한 판하본의 원천텍스트 종류와 함께 1937년 인출불사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다카하시 도오루교수 등의 역사·문화적인 인식 틀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1937년 보각경판을 만들 때 활용한 판하본의 원천텍스트 종류는 세조 3(1457)~4년 국왕의 주도로 해인사대장경판을 찍어 만든 50질의 인출본²⁹⁾ 가운데 정양사·조조지(增上寺) 등지의 소장본³⁰⁾이다. 조선 세조 때 만든 인출본에는 해인사대장경판에 포함된 개별 권의 마지막 장에 새겨진 간행정보가 누락된 사례가 상당히 발견된다.³¹⁾ 조조지 소장의 해당 인출본에도 권미제 다음 부분에 간행정보와 판미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1937년 『대반야바라밀다경』 권31의 제27장이 보각될 때에는 간행정보와 판미제가 누락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누락 현상은 다카하시 도오루 등의 식민주의 역사·문화적인 인식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³²⁾ 우리나라 역사·문화의 근대적 연구

28) 崔永好, 2008, 앞의 책, 78쪽.

29) 일본 조조지 소장의 해인사대장경판 인출본은 세조 3~4년 찍었다가 성종 13년(1482) 5월 일본으로 준 외교적 의례물품이다(馬場久幸, 2008, 『高麗大藏經이 日本佛敎에 미친 影響』,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31~135쪽). 정양사 소장의 인출본도 세조 때 만들어 정양사의 본사인 楡岾寺에 내려준 한 질(『靑莊館全書』 권55, 叢葉記2, 『海印寺藏經』 및 任得均(性安스님), 2014, 『海印寺 소장 高麗大藏經板의 印經佛事에 대한 조선 세조의 지원 의도』, 『石堂論叢』 59, 199~201쪽)로 짐작할 수 있다.

30) 高橋亨, 1951, 앞의 논문, 217·224쪽.

31) 세조 때의 인출불사에서는 13세기 중엽 해인사대장경판의 조성을 주도한 高麗國 등이 표기된 간행정보를 상당 부분 누락하였다(增上寺史料編纂所, 1982, 『增上寺三大藏經目錄解題』, 47쪽; 馬場久幸, 2008, 앞의 학위논문, 145~146쪽).

32) 崔永好, 2014, 앞의 논문, 125~128쪽.

에 큰 영향을 준 다카하시 도오루는 조선사학회의 평의원을 역임하고³³⁾ 1936년에는 조선 불교의 역사적 의타성이라는 論說을 발표하는³⁴⁾ 등 우리나라 불교연구 과정에서 총독부의 식민지통치정책에 적극 기여하는 동시에, 식민주의의 인식 틀도 가지고 있었다.³⁵⁾ 다카하시 도오루는 이러한 행적이 나 학문적 성향으로, 1937년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불사 과정에서 보각된 개별 경판에다가 13세기 중엽 고려왕조의 자주성을 담고 있는 간행정보를 누락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1937년의 해인사대장경판 인출본에는 이 때 보충된 해당 보각경판의 광곽 형태와 서체, 각수·간행정보의 유무 등도 반영되어 있다. 때문에 이러한 비교지표와 함께 종이 종류를 근거로 1937년 인출본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특히 1937년 보충되었다가 현재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존되어 있는 개별 보각경판에는 인출 사실을 알려주는 먹의 흔적도 있으므로, 이 때 인출불사 과정에서 해당 개별 보각경판이 인출경판으로 활용된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1937년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불사는 만주국 황제의 요청에 부응하여 해당 인출본을 봉정할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이 당시 복수의 언론자료에서도 인출불사가 만주국 황제의 간절한 희망³⁶⁾에 부응한데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더구나 당시의 언론 보도기사에서는 인출본의 봉정 결정을 ‘일본·만주국의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동 목표의 달성을 노력하는 정신에 바탕을 두고(日滿一德一心の精神に基いて³⁷⁾)’라 하였다. 때문에 인출본의 봉정 목적에는 일본

33) 李萬烈, 1981, 『韓國近代 歷史學의 理解』, 문학과지성사, 267~268쪽.

34) 高橋亨, 1936, 「朝鮮佛敎의 歷史的依他性」, 『朝鮮』 250, 朝鮮總督府.

35) 조남호, 2003,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의 조선불교연구」, 『韓國思想과 文化』 20, 수덕문화사.

36) 『半島二千年の 文化を秘むる 八萬大藏經 : 滿洲國皇帝の御懇望から 近く總督府で印刷』, 『京城日報』 1937.09.17.(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연속간행물/한국근현대신문자료).

『海印寺の 八萬大藏經 滿洲國皇室에서 寫本二部를 御請求 : 二部印寫費三萬圓巨額 『至重文獻』 光榮』, 『每日申報』 1937.09.17.(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화 자료).

『高麗大藏經印刻を 皇帝陛下に捧呈 : 京城帝大高橋教授が完成の 世界一の至寶大經典』, 『新京日日新聞』 1938.01.23(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연속간행물/한국근현대신문자료).

37) 위의 「高麗大藏經印刻を 皇帝陛下に捧呈 : 京城帝大高橋教授が完成の 世界一の至寶大經典」 기사 내용 참조.

제국주의가 만주국과의 정치·외교적인 공동목표를 강화시켜 대륙침략의 거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해인사에서의 인출불사 과정에서는 불사의 시작 범회와 함께 마무리의 慶讚법회에서 만주국 황제의 만수무강도 기원³⁸⁾하는 등 만주국 황제의 환심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1937년 조선총독을 비롯한 일본제국주의는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사업을 자신들의 정치·외교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창왕 즉위년 7월 이래 조선 명종 11년까지 해인사대장경판은 일본조정·막부 및 琉球國·對馬島 등에서 중요한 외교 의례물품으로 인식하였으며,³⁹⁾ 일본과 외교적 관계에서 화친의 의례물품으로도 역할⁴⁰⁾하는 등 외교적인 교섭과정에서 중요한 매체로 활용되었다. 1937년 일본제국주의는 이러한 역사·문화적인 경험을 자신들의 정치·외교적인 목적으로 변용·활용하였던 것이다.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13세기 중엽 고려 사람들이 염원·실천한 민족적 위기의 극복의지와 함께 동아시아사회의 佛敎敎學을 발전적으로 통합·계승한 海印寺大藏經板의 1937년 印出佛事に 대한 경위와 주체, 인출본의 실체, 그리고 滿洲國 황제에게 인출본을 봉정한 목적 등을 검토하였다. 진단 내용의 요약으로 맺음말을 대신한다.

해인사대장경판은 13세기 중엽 조성된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최소 16차례 인출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도 1915년과 1937년 두 차례의 인출불사가 이루어졌다. 일제강점기의 인출불사는 주체와 목적에서 이전의 인출사례와

38) 高橋亨, 1951, 앞의 논문, 217·221쪽.

39) 『世宗實錄』 권10, 세종 2년 10월 경신.

『世祖實錄』 권12, 세조 4년 3월 무술 및 권27, 세조 8년 2월 계사.

40) 『世宗實錄』 권7, 세종 2년 정월 을사.

비교하여 역사·문화적으로 독특한 성격을 보이고 있다. 인출불사의 주체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였으며, 목적도 일본제국주의의 국가적·외교적인 필요성과 직결되어 있었다. 더구나 1937년 인출불사의 목적도 1915년 사례와 차이를 보인다. 1915년의 인출불사가 일본 황실의 원찰인 센뉴지(泉湧寺)에 안치할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본을 조성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으나, 1937년의 경우는 만주국 황실의 요청에 부응한 외교적 의례물품의 확보 목적에서 수행되었던 것이다.

1937년 인출불사는 만주국 宮內府와 조선총독이 인출불사 수행여부의 타진단계부터 완성된 인출본의 봉정단계까지 전체 과정에 개입되어 있었다. 더구나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교수의 실무책임 의뢰도 조선총독부 등이 주도하였다. 때문에 1937년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불사는 만주국의 요청으로 조선총독부가 주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사항에서 해인사대장경판을 조성·보존하였던 우리민족의 의사나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일본제국주의와 조선총독부의 정치·외교적 이해관계가 반영되었던 것이다.

1937년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불사로 조성된 인출본의 두 질은 형태서지학적인 실체나 성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만주국 소장본의 경우는 만주국 패망 이후 행방을 확인할 수 없으며, 묘향산 보현사의 소장본도 현실적으로 접근과 열람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인출종이와 함께 이 때 보충된 해당 보각경판의 특징 등으로 1937년 인출본의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우선, 1937년 해인사대장경판 인출본의 인출종이는 순수한 다나무 껍질(純楮皮)로 만든 닥종이로, 만주국 소장본은 黃蘗色으로 물들인 黃紙이며, 묘향산 보현사의 경우는 白紙이다. 다음으로, 1937년 보각경판은 13세기 중엽 조성된 해당원판의 인출본과 비교하여 글자·광곽형태 및 각수·간행정보의 표기유무 등에서 일부의 차이를 보인다. 이 당시에는 해인사와 금강산 정양사 및 조조지 등의 소장 인출본을 저본으로 활용하여 콜로타이프 방식으로 판하본을 제작한 다음, 전체 18판 31면을 복각하였으므로, 13세기 중엽 조

성의 해당 원판과 본문 서체나 권제·판제의 형식이 유사하다. 그러면서 1937년 보각경판은 13세기 중엽 조성된 해당 원판의 인출본과 비교하여 글자·광곽형태 및 각수·간행정보의 표기유무 등에서 일부의 차이를 보이므로, 이 때의 인출본은 이들 비교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37년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불사는 해당 인출본을 만주국 황제에게 봉정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인출불사는 옛 서적에 취미를 가지고 불교 신앙도 두터웠던 만주국 황제가 해인사대장경판 인출본을 열람한 이후, 조선총독에게 인출의사를 전달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인출불사의 목적은 만주국 황제의 간절한 희망에 부응하여 수행되었다. 더구나 만주국의 황제에게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본을 봉정한 목적은 일본제국주의가 만주국과 정치·외교적인 공동목표를 강화시켜 대륙침략의 거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1937년 조선총독을 비롯한 일본제국주의는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불사로 만들어진 인출본을 자신들의 정치·외교적인 목적으로 변용·활용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 『高麗史』
『世宗實錄』
『世祖實錄』
『明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牧隱藁』
『東文選』
『靑莊館全書』
『朝鮮總督府官報』
『東亞日報』
『京城日報』
『每日申報』
『新京日日新聞』
『平壤每日新聞』
高橋亨, 1939, 『高麗大藏經印出顛末』(필사본 보고서)
增上寺史料編纂所, 1982, 『增上寺三大藏經目錄解題』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海外典籍文化財調査目錄-日本 大谷大學 所藏 高麗大藏經』
최영호 외 3명, 2013, 『국보 제32호 海印寺大藏經板 중복판 조사용역사업 보고서』,
법보종찰해인사·합천군

徐首生 著, 南權熙 補·編, 2009, 『세계기록유산 해인사 팔만대장경과 시간관 연구』,
청주고인쇄박물관
吳龍燮, 2002, 『『高麗國大藏移安記』에 대한 考察』, 『書誌學研究』 24, 한국서지학회
오윤희, 2011, 『대장경, 천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 불광출판사
李萬烈, 1981, 『韓國近代 歷史學의 理解』, 문학과지성사
任得均(性安스님), 2014, 『海印寺 소장 高麗大藏經板의 印經佛事に 대한 조선 세조의
지원 의도』, 『石堂論叢』 59,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조남호, 2003,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의 조선불교연구』, 『韓國思想과 文化』 20, 수
덕문화사
崔凡述, 1970, 『海印寺寺刊鑲板目錄』, 『東方學志』 1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최영호, 2008,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판각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崔永好, 2014, 『해인사 소장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일제강점기 補刻板 조성현황과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40, 한국중세사학회

韓文鍾, 2002, 『조선전기 일본의 大藏經求請과 한일간의 文化交流』, 『한일관계사연구』 17, 한일관계사학회

高橋亨, 1936, 『朝鮮仏教の歴史的依他性』, 『朝鮮』 250, 朝鮮總督府

高橋亨, 1951, 『高麗大藏經板印出顛末』, 『朝鮮學報』 2, 天理大學 朝鮮學會

馬場久幸, 2008, 『高麗大藏經이 日本佛敎에 미친 影響』,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小田幹治郎・寺內正毅, 1923, 『高麗板大藏經印刷顛末(1915)』, 東山 泉湧寺

池內宏, 1923, 『高麗朝の大藏經(上)』 『東洋學報』 13 - 3, 東洋學術協會

池內宏, 1937, 『滿鮮史研究』 中世2, 吉川弘文館

투고일 : 2019년 03월 29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4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9년 04월 13일

■ Abstract ■

A Study on the Pu-Yi(溥儀) of the Manchukuo's(滿洲國)
Emperor & the Printing-Work of the Haein-Temple's
Tripitaka-Woodblock(海印寺大藏經板) in 1937

Choy, Young-Ho (Dong-A University)

This papers attempt to analyze the printing - work of the Haein - Temple's Tripitaka - Woodblock that was printed in 1937. In the process, this paper reviewed the details and main agents of the printing - work, the bibliographical form of the printing - books, and the purpose for delivering the printing - books to the Pu - Yi of the Manchukuo's Emperor.

At this time, the printing - work of the Haein - Temple's Tripitaka - Woodblock began in response to the Manchukuo - Emperor's earnest request. The printing - work was spearheaded by the Korea Government - General(朝鮮總督府) that has ruled the Joseon(朝鮮) - Dynasty as a colony. the printing - books were yellow or white paper, and the bibliographical form of the printing - books were compared to the original Woodblock that was printed in the mid - 13th century, which differed in the letter - type(書體) and the existence or absence of the engravers(刻手), along with published information.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the delivering printing - books helped to realize the political and diplomatic interests of Japanese imperialism in the Manchukuo. In the process, Korea's Buddhist cultural heritage was also expanded.

Key words : the Haein - temple's Tripitaka - Woodblock(海印寺大藏經板), the printing - work of 1937 year, the Korea Government - General(朝鮮總督府), Manchukuo(滿洲國), Pu - Yi(溥儀)